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의 미소

김지현

가야산 수정봉 커마 바위에 천년을 간혀 살고 있는 마애 삼존불 인간세상 희로애락 모두 의연하고 그렇게 웃고만 계시다가,

제화보살

억겁의 돌을 깨고 인간세상 나와서 서산 저갯거리 증생들 만나보니 마타세게 다른 게 아니었구나 산벚꽃 분분하던 어느 봄날 곰곰 생각에 잠긴 미륵보살님은 천지간에 꽃시절 잠깐인데 산문 환히 열어놓고 구름 탁발, 바람 탁발,

먼 서역에서 걸어와

돌속 고행으로 화엄세계 이룬이여 미륵보살 제화보살 양 옆에 거느리고 증생제도 뜻하심인가

산동땅 오가던 백제인 고된 뱃길

만리 밖 밝히돌록 천년을 등글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석가여래님,

백어난 명품 하나 주고 간

백제인의 지문이었던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며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김지현 시인은... 충남 강경 출생.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회중시계〉, 〈황금빛 가창오리매〉 등

차기 원로의장 밀운·월서·월탄·종하·현해 스님 물망

조계종 대표 원로 스님들의 기구인 원로회의를 이끌 새 의장 선출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로회의는 종법 상 중정 추대권을 비롯해 ▷중헌 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 및 불신임 결의권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권 등의 권한이 있어 향후 종단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10일 제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룬다. 현 의장 종산 스님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다.

현재 차기 원로의장에는 현 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월서, 월탄, 종하, 현해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가나다순). 이들은 모두 원로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종헌·산중총회법·원로회의법 개정안 성안을 주도해 왔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조계종 전 계대대상 고산 스님은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소위 핵심 인원 다섯 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후보군에서 차기 원로의장이 선출된다는 것은 종단 정책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현재 원로의원은 종산, 지해, 밀운, 초우, 고산, 도문, 원명, 명신, 월서, 혜승, 현해, 고우, 법흥, 월파, 무진장, 종하, 월탄, 인환, 정관, 압도, 근일, 세민, 정련, 지성 스님 등 24명으로, 후보가 단일화되지 못할 경우 호선을 해서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10일 회의서 차기의장 선출

향후 종단 정책 방향에 영향

소위, 6일 중헌 개정 세미나

멸쟁위 신설 타당성 등 논의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을 비롯해 산중총회법, 원로회의법 개정안 성안에 대한 인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10월 6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세미나



밀운 스님

월서 스님

월탄 스님

종하 스님

현해 스님

를 열고 중정 자문위원회·멸쟁위원회 등 조계종 새 기구 신설에 대한 계율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차주 상보)

특히 멸쟁위원회 설치 부분은 징계에 대한 제재의견란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받았다. 멸쟁위원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호계의 원, 종회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통과 후 중정 스님에게 사면제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을 비롯한 율사 스님들,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원로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현해 스님은 "1969년 이후 50년 동안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총무원과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것들이 많았다"며 "초심·재심 호계원 제도가 있지만 보다 계율에 근간해 억울한 이를 복권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종단의 선거 또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 발생한 폐단이 많다"며 "불교에 갈마법이란 전통이 있는 만큼 이에 근간해 대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불교만의 새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이 노장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종일·노덕환 기자

“온 세상은 하나... 환경 파괴는 인류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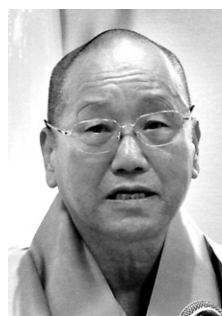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 UN 세계종교지도자모임서 법문

10월 4일 UN플라자 빌딩서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세계종교지도자들에게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제 스님(사진)은 10월 4일 오후 1시(현지 시간) 밀레니엄 UN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UN 세계종교지도자 모임'에서 '세계평화와 생태학적 위기'를 주제로 초청법문을 진행했다.

진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 종교간 대화는 인류평화를 위한 정신적 토대이며,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인들이 앞장서 굿주림과 병고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환경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는 2600년 동안 인류의 문화적, 정신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1600년 정통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불교도 세계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 마음 닦는 수행을 통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구촌 평화와 건강한 생태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설

했다. 이와 함께 간화선 수행법을 소개하고 개인 직분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온 세상은 하나이다. 만물은 나와 너와 더불어 돌이 아니다"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인류의 위기이다. 산, 물과 같은 덕행을 행해 우리의 타전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제 스님은 법문에 앞서 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담임목사 더글라스 코어 주최 만찬과 5일(현지시간) 이슬람지도자 초청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10월 7일(한국시간) 귀국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회기 불출석 종회의원 제재 필요”

NGO모니터단, 제191회 중앙종회 평가결과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저조한 회기 출석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계 NGO 활동가들로 구성된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은 지난 9월 18~19일 열린 제 191회 중앙종회임사회 모니터링 결과를 10월 4일 발표했다. 〈23면 결과문 요약개제〉

모니터단은 평가서를 통해 "중앙종회가 임사회를 여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기

종회의원 평균 출석률은 66%에 불과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떠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과 6월, 9월 회기동안 중앙종회를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적지 않다. 종도들의 민의를 외면한 중앙종회의원은 종회 차원의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은 원로회의 인준 여

부가 불확실해 종헌 개정을 미룬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중앙종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원로회의도 입법기관이 아닌 만큼 상정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중앙종회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종헌개정에 관한 논의는 중앙종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이날을 3월과 6월, 9월 중앙종회 모니터 결과,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시키고, 10월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신종일 기자

태고종 제37기 합동득도수계식 봉행

9월 26일 순천 선암사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9월 26일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 중앙금강계단을 열고 제37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전계사리 총무원장 인공스님, 교수사리 종회의장 도산 스님, 갈마아사리 호법원장 운곡 스님을 계사(戒師)로 전체 137명(사미 88명, 사미니 49명)의 스님이 탄생했다.

태고종 중정 해초스님은 법문에서 "일체 약한 일을 하지 말며, 선(善)을 실천하여, 모든 증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달라"고 수계자에게 당부했다.

이날 수계행차는 지난 9월 5일부터 3주간의 연수교육을 통해 예경의식,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사경문 등을 이수했다. 또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과 정근, 강의, 운역,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의 교육일정과 수계식에 앞서 18일에는 경내 중간부도탑에서 대웅전앞 특설도량까지 1.2Km를 일보일배 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태고종은 9월 26일 선암사에서 합동득도수계식을 봉행했다.

www.kwanum.kr



열반 전의 태허 조사

태허조사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 이것이 참불교다

태허조사 一大事因緣을 말하다.

대한불교관음종을 창종한 태허 홍선 조사 탄신 108주년을 맞이하여 국가가 어려운 시절 국민의 안정을 위해 거리에서 설법하시고, 1만 여 쪽의 육필원고로 후학에게 가르침을 남기신 개산조 태허조사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태허조사 스님의 크신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2556(2012)년 10월 10일(음8.25)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 서울 종로구 송인동 178-3 / T: 02)763-0054
- 주 최 : (재)대한불교관음종
- 주 관 : 현대불교문화학술원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관음종